

김광수 “국민연금기금 투명성 강화해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 이사장 임명에 국회의 인사 청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6일 국민연금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56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의 외압으로 인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와 관련해 현재 특검에서 관련자들에게 대한 구속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기금을 살펴보면 약 176조원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나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 방법, 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 재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명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직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상설기구인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소환되는 최경희

‘정유라 특혜 제공’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베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별다른 징계 없이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했고, 결국 특검 1호로 구속기소됐다”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기금보유주식의결권 행사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문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도의회 환복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종감염병 위협요인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최훈열 위원장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위협요인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감염병감사과’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묻고 지역 감염병 진단 거점센터 역할에 충실해 달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기오염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대기측정소가 없는 인구밀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소 2개를 신설, 확충함에 따른 대기오염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 법원, 특검 신청 ‘각하’

대통령 비서실장 · 경호실장 상대로 낸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원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재판장 회의를 거쳐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

특검팀 측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팀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특검팀 측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직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이에 수백회에 걸친 차명폰 통화사실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뉴시스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비전’

사람과미래,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특강

(사)사람과미래는 오는 19일 2시에 전주시청에서 1차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아카데미와 연구소의 사업계획보고에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비전’이란 주제로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특강을 실시한다.

(사)사람과미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연구소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아카데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 아카데미는 지난 7일부터 ‘사람의 미래를 상상하라’는 주제로 안도현 시인, 조국 서울대교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학계 문화예술 분야 등 여러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제1기 인문사회강좌를 시작했다.

정책연구소는 보편복지, 사회적경제, 건축도시환경, 음식,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사람과미래는 팜플렛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소수의 특권이 아닌 다수의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연구소와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속가능사회, 사회적경제, 보편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난 12월 설립됐다.

/인재용 기자

특검팀, 수사연장신청... ‘기한내 의혹 규명 못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황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일인 이달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상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검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삼성 등 기업 뇌물죄 수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압초를 만나며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SK·CJ·롯데 등 기업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가 밀리며 사실상 1차 수사 기한 내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
행복한 교실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리’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